

* 찬양 SONG OF PRAISE	다함께
*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204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현종영전도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1Corinthians) 1:1-9	이규본목사
찬양 CHOIR	찬양대
말씀 SERMON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성도" "Saints with eyes open to Jesus"	이규본목사
헌금 OFFERING	다함께
* 헌금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찬송 HYMN 486장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규본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소식

-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월 헌금 송:** 1/12: 바나바 선교회, 1/19 에스터 선교회
- 정영희 전도사:**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 사역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공부:** 안수 집사, 권사 성경공부가 매주 오전 1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pm8:30) 46-04 162 St. Flushing NY11358 뉴욕새사랑 교회 (이종원 목사시무) 참석할 수 있는 분은 현종영 전도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RTS:**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가 개강하였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공부 및 셀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 2020년 매주일 점심 봉사 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이재숙 권사).
주님 안에서 가족 생일, 기념, 추모를 기리는 봉사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1-9 제목: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성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고전 1:8)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보이지 못하여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손상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교회는 반드시 치료 되고 회복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1.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이방 신전이 30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여 사제가 천 명이나 있었는데 모두 창녀들 이었습니다. 또 바알신전인 멜카트 신전은 호모섹스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인” 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 이라는 뜻으로 통용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6개월 동안 복음을 고린도에서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 전파하였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거룩해 지지는 못했습니다. “믿으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죄 성을 버리지 못한 죄인들이다”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십니다

죄가 들끓는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2절)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거룩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몸을 주님께 빌려 드리는 것입니다. 죄 짓는데 사용하던 우리 몸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정욕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내 몸을 빌려 드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통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 예수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십니다(8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바울 사도가 본 교회 입니다.

3. 주께서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교제케 하여 교회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가진 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를 어떻게 온전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케 하여 부족한 부분을 점점 없애지게 해서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 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9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다. 우리에게는 출생이 있고 사망이 있으며 한번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서 살던 생명은 죽으면서 끝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그런 생명 말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생명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유한과 무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계획하셨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순한 생명의 길이 뿐 아니라 생명의 질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순종에 있고 봉사에 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과 기쁨을 누리는데 있다.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똑 같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생명을 보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것까지 보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들은 바요’ 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말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 한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하신 것 같지만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다. (01122020)

2020년 기도제목

1.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 성장,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 전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한 사람이 10명씩 전도하고 사랑하자)
3. 성전건축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4. 유치부, 유년부 주일학교, EM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5. Cell 모임을 배가 되게 하소서
6. ERTS신학교가 부흥케 하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목사: 이규본
- *행정전도사: 현종영
- *교육전도사: 전행복(EM), 정영희(주일학교)
- *전도사: 박휘영, 한우연
- *권사: 이재숙
- *안수집사: 김남규, 박재현, 이응두
- *지휘: 이재숙 *반주: 서남숙
- *찬양대: 김남규, 박휘영, 현종영
이재숙, 이 윤, 장수자

예 배 시 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월-토 5:5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셀 모임	모이는 장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 비 전 교 회

새 시대를 열어 주는 교회(요1:51)
“The Church Opens a New Era”

The Lord's Vision Community Church
90 Plandome Road, Manhasset, NY 11030
TEL: (718) 787-8999, (856) 308-6997
담임목사: 이 규 본 (Rev. David Bon Rhee)
email: bonerhee@gmail.com www.juvision.org